

# CASE STUDY

부제 : 밥 잘 사주는 예쁜 아내를 만나는 방법

평생에 단 한 명뿐인  
반려를 만난 사례



## INTRODUCTION

버크만 진단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더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에 대한 이해와 서로를 이  
해하기 위한 노력과 배려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그동안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던 두 남녀가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보실까요? ?



아하~!! 이런 돌 깨지는 소리(?) 가 여기저기 들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 내내 너무도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크만을 사랑하는  
버크만 전도사 손예진입니다.

바야흐로 2015년 11월 직장동료들과 버크만 베이직 과정과 FT과정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동료 강사들이 버크만 FT과정을 통해 버크만 디프리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단체 수강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일단 서로 아는 사이의 사람들이 함께 버크만 수업을 들으니 자격과정 이수라는 무게감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팀 빌딩 같은 수업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구나!,  
아하~~!! 이런 돌 깨지는 소리(?) 가 여기저기 들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 내내 너무도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버크만 진단을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먼저 느껴보았기 때문에 버크만 진단을 통해 가족에 대한 이해, 조직원의 이해가 가능하며 다수가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버크만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 과정을 다 마치고 타 부서 전체 팀원들의 진단을 진행하였고 단체 디브리핑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아 00 과장님께 무엇을 부탁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00 실장님 저에게 업무지시를 해주실 때는 제안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저는 더 기쁘게 일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욕구를 서로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버크만의 ‘Better happiness’를 우리 팀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상사분께 교육비 제대로 회수한다는 칭찬도 함께 받았습니다~

\*편의를 위하여 가명이 사용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해인 씨. 이견 저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버크만 진단을 업무에 적용한 사례도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더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버크만과 결혼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버크만 진단과 실제 팀 빌딩 활용으로 버크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때 막 만나기 시작한 소개팅 남에게 버크만 진단을 권유했습니다.

사실 권유라기보다는 반강제적으로

“해인 씨. 이견 저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과학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같이 진행을 해보셔야 이 안내서를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은데, 인터넷 진단으로 30분 소요 되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말하며 저의 버크만 결과지를 들이밀었습니다.

저의 의도대로 저는 상대방의 버크만 진단 결과지를 손에 넣을 수 있었고, 가장 먼저 살펴 본 것이 바로 흥미 부분입니다.

여가를 함께 보내면서 흥미가 같다면 훨씬 많은 것을 함께 하며 서로를 충전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흥미가 저와 같은 블루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 그럼 내가 주말에 미술관에 가겠다고 했을 때, 훨씬 쉽게 동의하고 함께 즐겨 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꽃꽂이 수업을 듣겠다고 하면 다른 색깔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흔쾌히 오케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시작했고 저희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버크만 진단은 저에게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아닌 진심을 다한  
서로의 다름 인정 할 수 있도록 해준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따금씩 신랑의 버크만 진단을 꺼내 보면서 ‘아. 이 사람에게는 부탁과 제안으로 나의 요구를 전달해야 성공하겠군!’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으니 훨씬 더 쉽게 소통할 수 있고,

때때로 보이는 스트레스 행동을 바라보며 ‘아 왜 저러지?’가 아니라,

‘아 상사가 결론을 안 주고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상황인가 보다.’라며 맥주와 안주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많은 행동진단, 성격 진단을 받아보았지만 항상 2% 부족함을 느껴왔는데 버크만 진단을 만나면서 “이건 거의 점쟁이 수준의 진단이군!” 하며 감탄을 하곤 합니다.

FT과정을 수료하고 나서는 직장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버크만 디프리퍼로서 활동을 활발히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퇴직을 하고 앞으로의 제 인생에 버크만은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이해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버크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버크만의 진정한 의미를 저를 통해 알 수 있도록 공부하고 전달하는 디브리퍼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을 준비 중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아닌 진심을 다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준 버크만 진단을 만나게 해준 저희 회사와 상사분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가 저를 통해 버크만을 만나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버크만은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이해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버크만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까요.





## 손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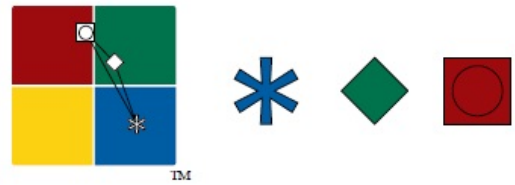
- ✓ 저의 취미는 문화/예술!
- ✓ 저는 존중받을 수 있고, 조화로운 환경을 원해요.

손예진 님과 정해인 님 두 분은 문화, 예술과 관련된 분야에 흥미가 높으니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공감하며, 조화롭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서로가 원하는 환경은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예진 님이 원하는 환경은 존중받고, 배려 받고 싶은 부분이 해인님에게는 답답함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해인님의 현실성 있으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얻고 싶어 하는 부분이 예진님에게는 ‘감정이 없어!’ 보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네요.



## 정해인



- ✓ 저도 문화/예술 좋아합니다!
- ✓ 저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환경을 원해요.

예진님에게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해인님에게는 조금은 현실적인 답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조직지향점도 예진님은 파랑, 해인님은 빨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이 반대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서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껏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만난 두 분의 앞길에 배려와 사랑이라는 꽃 길이 무수히 뻗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편의를 위하여 가명이 사용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908호 버크만코리아  
02-2676-0400  
[www.birkmankorea.co.kr](http://www.birkmankorea.co.kr)

Copyright © 2018, Birkman Korea. All rights reserved.

Birkman and the Birkman logo are trademarks of Birkman International, Inc.  
Story attribution: Birkmankorea via story is used with kind permission of Choi yu yeon.  
Photo attribution: Birkmankorea via photo is used with kind permission of unsplash, JTBC blog.